## Dokdo



# 老老生叫出华基等互对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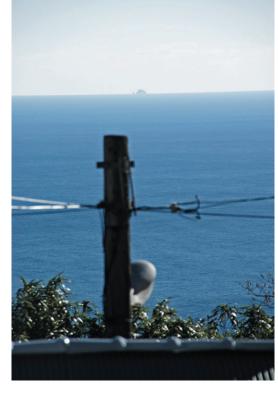
# as Seen from Ulleung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발행인 김용덕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5층

전화 02-2012-6104

팩스 02-2012-6186

www.historyfoundation.or.kr / www.dokdohistory.com

발행일 2009년 5월 18일

도록제작 포토넷 www.mphotonet.com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 책에 수록된 도판의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2009,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s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Publisher Kim Yongdeok

Published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mgwang Bldg, 77 Uijuro, Seodaemun-gu, Seoul, Korea 120-705 Tel 82-2-2012-6104 Fax 82-2-2102-6186

### 로 등 도에서 비가보 독도전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전

기간 2009. 5. 18~29 | 장소 국회의원 희관, 국회도서관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후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Period 18~29 May. 2009 | Venue National Assembly Members' Building/National Assembly Library
Organized by Dokdo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ponsored by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Dokdo



### 인사말

6\_5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우리의 고문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촬영한 독도 사진과 울릉도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6세기 이전 울릉도에 사람들이 거주한 때로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적 권원을 분명히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울릉도일 뿐 아니라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독도는 울릉도와는 떼어서 볼 수 없는 섬입니다.

우리 재단의 독도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 촬영하는 '독도 가시일수(可視日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의 성과들을 엮어서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전을 열고, 아울러 사진집을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독도가 울릉도와는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7년 등 당

### Foreword

Dokdo's visibility from Ulleungdo is a historical fact, evidenced by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Capter in the veritable Record of King Sejong) and other archival records. It is also evident in the photos of Dokdo taken from Ulleungdo. Furthemore, Dokdo's visibility from Ulleungdo is a part of the everyday lives of Ulleungdo residents.

The fact that Dokdo can be seen from Ulleungdo indicates that people have been aware of Dokdo since Ulleungdo came to be inhabited, which was some time before the 6th century AD. This i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demonstrating the historical basis for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Not only is Ulleungdo the closest island to Dokdo, but Dokdo is also integral part of Ulleungdo.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as been engaged in a long-term monitoring project since 2008, which is aimed at securing objective evidence that can verify Dokdo's visibility from Ulleungdo. The project comprises observation and photography to determine the number of days when Dokdo is visible from Ulleungdo.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is a photography exhibit that brings together the fruits of our efforts thus far. We have also compiled the pictures into a book of photographs. We hope that this exhib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verify the evidences that the Korean people have been aware of Dokdo as their fishing basis since the distant past watching Dokdo with the eyes from Ulleungdo.

KIM Yongdeok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 우리와 삶을 같이 한 우리 땅 이야기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전(展)

독도는 예로부터 한국의 영토입니다.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6세기 이전부터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한 우리 땅입니다. 「만기요람」(1808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우산국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울릉도와 짝을 이루는 형제섬이라는 것은 우리 문헌뿐만 아니라 '울릉도외 1도(독도)'로 표기한 「태정관 지령문」(1877년) 등 일본 문헌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법적, 역사·지리적 관계 속에서 그 역사적 권원과 영유권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일본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지리적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학공 식까지 동원하여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초 이전까지 한국인들이 독 도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풍일 청명(風日淸明)한 날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과, 또 17세기 울릉도 수토관(搜討官) 장한상이 "울릉도 동남쪽에 섬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기록 등이 역사 문헌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 독도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독도가시일 수 조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세종실 록지리지 등 고문헌의 기록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울릉도 주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속에서 독도와 함께 해 왔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주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조사자들은 도동리 위쪽 마을(깍끼등)을 중심으로 관측을 하였는데, 주된 관측 장소는 독도전망대가 있는 망향봉(317m) 보다 낮은 해발 270m위치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곳은 도동리의 깍끼등 뿐만 아니라 사동리의 안평전, 저동리의 내수전, 북면의 석포 등 울릉도의 남동쪽 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해발고도를 보면,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의 최저고 도는 208m입니다. 그런데, 도동리의 행남 등대 직원들에 따르면, '이주 맑은 날 행남 등대에서도 독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행남 등대의 고도는 165m 정도입니다. 물론 이 보다 높은 성인봉(984m) 지역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친숙하게 보이는 독도이지만, 울릉도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독도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직접 보기 위해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날을 기다려도 독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것처럼 "풍일청명"(風日清明)한 날, 곧 바람이 있는 맑은 날에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자들의 경우, 전날의 날씨를 보고, 다음날 기상예보를 보면 60~70% 정도는 독도가 보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도는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는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봄에 더 잘 보입니다. 현재까지 관측일수를 보면, 2008년 11월에 6일까지 관측된 경우도 있으나, 월평균 3~4회 이상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루 중에는 한낮보다는 아침시간에 더 잘 보이는 편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그동안 관측 촬영한 결과물(사진, 비디오)을 가지고,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전과 사진집 발간을 기획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의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줄곧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존해 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울릉도의 사계절과 함께 다양하게 비취는 독도의 일상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앞마당에 열린 감나무를 배경으로 한 사진도 있고, 길을 걷다가 찍은 사진도 있으며, 집 마당에 서 있는 전봇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 주민들에게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 이외에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울릉도에서 바라본 육지', '인 공위성에서 바라본 독도' 등 다양한 사진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자료를 통해 독도가 혼자 외롭게 떠 있는 섬이 아니라 우리와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와 삶을 같이 한 우리 일상의 동무이자 이웃이며, 나아가 우리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독도연구소장 겸 국제표기명청대사 신길수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 The Story of Dokdo, an Inseparable Part of Korean Territory and Life

Exhibition: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Dokdo has long been Korean territory. Since Usanguk was subjugated by Silla some time before the 6th century AD, Dokdo, together with Ulleungdo, has been a part of Korea. In Mangi Yoram (1808), it is recorded that "Ulleungdo and Dokdo are both territories of Usanguk." The idea that Dokdo and Ulleungdo constitute an inseparable pair of sister islands appears frequently not only in Korean historical records but also in Japanese records as well. In the "Dajokan Directive" (1877), for instance, there is mention of "Ulleungdo and 1 other island (Dokdo)." Historical rights to an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maller islands have long been determined by their legal, historical, and geographical ties with larger, neighboring islands.

Japan has taken great pains to deny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lationship between Ulleungdo and Dokdo. One of Japan's claims is that Dokdo cannot be seen from Ulleungdo. Japan's so-called Dokdo expert even resorted to complex mathematical formulas to prove that Dokdo is not visible from Ulleungdo. What he wanted to prove was that Koreans had not even been aware of the existence of Dokdo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at Dokdo is visible from Ulleungdo. Historical records serve as archival evidence attesting to this fact. In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Chapter in the Veritable Record of King Sejong) of the 15th century, it is said that "[Dokdo] is visible on a clear, windy day." In the 17 century, JANG Han-sang, a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of Ulleungdo, wrote the following: "An island is faintly visible to the southeast of Ulleungdo."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as been engaged in a survey project, observing and capturing images of Dokdo from Ulleungdo. This project aims to positively prove that the Korean people have been aware of Dokdo since ancient times as is recorded in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Sejong Sillok Jiriji." Another important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monstrate through objective evidence

10\_9

that Dokdo has been a part of the everyday lives of Ulleungdo residents.

The survey team, composed of Ulleungdo residents, has been making most of its observations from Kkagkkideung, a village located in the upper reaches of Dodong-ri. Kkagkkideung is at 27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is lower than Manghyang Peak (317 meters) where a Dokdo observation point is located. Kkagkkideung is not the only location in Ulleungdo from which Dokdo can be seen. Indeed, Dokdo is visible from the entire southeastern region of the island, including Anpyeongjeon in Sadong-ri, Naesujeon in Jeodong-ri, and Seokpo in Bukmyeon. In terms of the position above sea level, the lowest point from which pictures of Dokdo have been taken thus far is at 208 meters. However, according to the staff of the Haengnam Lighthouse in Dodong-ri, "On a very clear day, Dokdo can even be seen from the Haengnam Lighthouse." Since this lighthouse is at around 165 meters above sea level, it is patently obvious that Dokdo is visible from Seongin Peak, which at 984 meters, is located way higher.

Even though Dokdo is such a familiar sight in Ulleungdo, it is not always easy for nonresidents to see it. Some people visit Ulleungdo to see Dokdo in person; however, those who are unlucky may wait days and still never catch a glimpse of the island. This is because as recorded in "Sejong Sillok Jiriji," Dokdo is only visible on a "clear, windy day."

The survey team has reported that they are able to predict, with an accuracy of 60 to 70%,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see Dokdo by observing the previous day's weather and the forecast for the day after. In the summer, there is a lot of fog in and around Dokdo. A better time to spot Dokdo is in the spring or fall when there are gusts of cold wind. From the data gathered so far, on average, Dokdo is visible from Ulleungdo more than three to four days per month. In terms of the time of the day, the early morning is better than midday.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has organized a photography exhibition and a book of photographs, both entitled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They will feature the images and videos captured during the survey. The exhibit and the book will clearly show that people have been aware of and co-existed with Dokdo for as long as Ulleungdo has been inhabited.

The photographs, taken across four seasons, capture the diverse, everyday aspects of Dokdo. There is a picture of Dokdo with a persimmon tree in the background. Another was taken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In another photo of Dokdo, a telephone pole is in the backdrop. To Ulleungdo residents, it is no news that Dokdo is within view. In addition to the photographs of Dokdo taken from Ulleungdo, there are also pictures of Ulleungdo taken from Dokdo as well as those of the mainland taken from Ulleungdo. There are also satellite images of Dokdo.

These images will reaffirm the fact that Dokdo is not a lonely, isolated island but intrinsically tied to Korean history and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Dokdo has been our everyday companion, neighbor, and habitat.

### SHIN Gil-su

Director of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 Ambassador for Geographical Naming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리랑2호 위성에서 바라본 독도 Dokdo as seen from multipurpose satellite Arirang-2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바람 부는 맑은 날 바라볼 수 있다.'

\_세종실록지리지(1454)

'Because of the proximity between
Ulleungdo and Dokdo, one can be
seen from the other on clear, windy days.'
\_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Chapter in the Veritable
Record of King Sejong, 1454)



"서쪽을 바라보니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며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아득히 동남방에 위치하며 섬의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는다". 울릉도사적(1694)

이 기록은 삼척영장 장한상이 숙종의 명을 받고 1694년(숙종 20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릉도를 수색, 토벌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To the west, one can see the jagged peaks of the Daegwallyeong, and to the east, there is an island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island, located far southeast, is less than one third the size of Ulleungdo and no more than some 300 li (Chinese miles) from it."

\_Chronicle of Ulleungdo(1694)

This was written by Jang Han-sang, the prefect of Samcheok, during his expedition to Ulleu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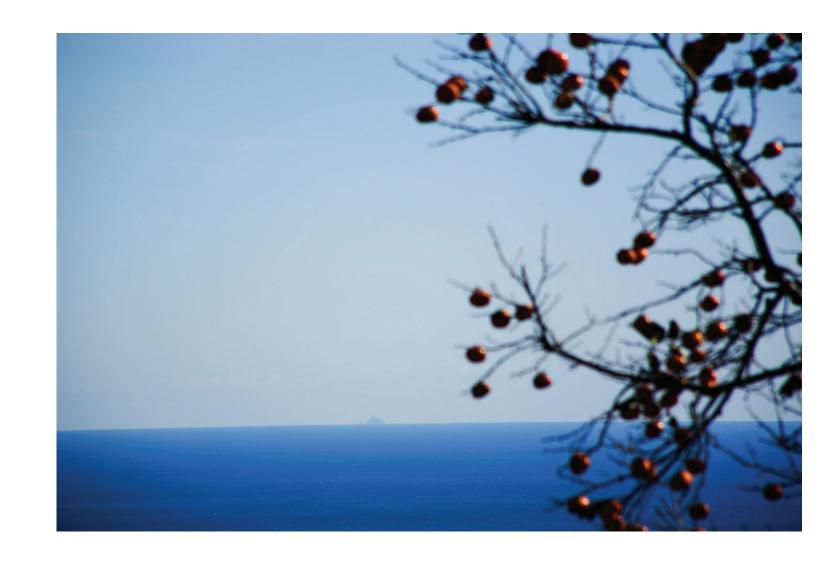
Jang Han-sang undertook the mission from September 19 to October 3, 1694 under the orders of King Sukjong (the 20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Dokdo as seen from Ulleungdo



### 독도의 전경

동도와 서도 View of Dokdo\_ Dongdo and Seodo



울릉도 사동 안평전에서 (2008.11.22) Dokdo as seen from Anpyeongjeon, Sadong, Ulleungdo (22 Nov.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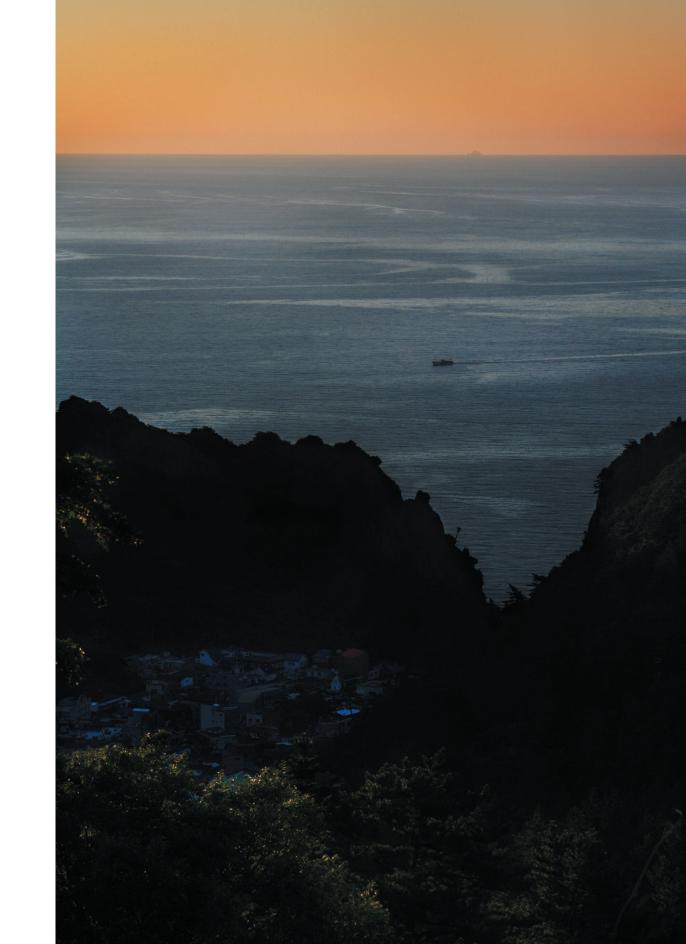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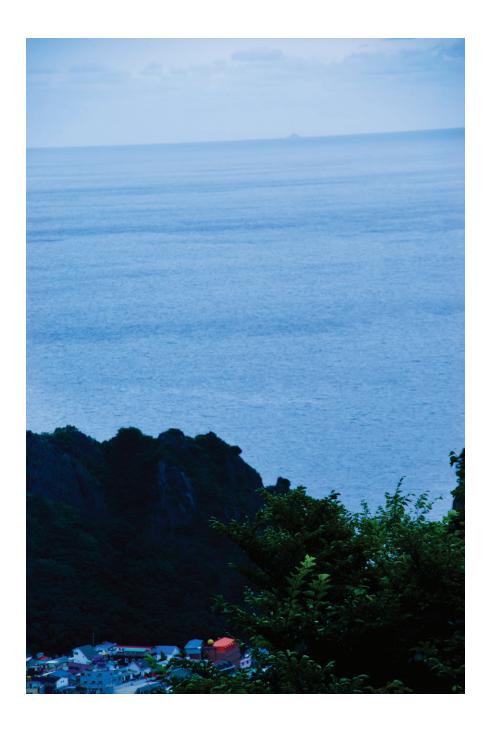
울릉도 사동 새각단으로 가는 길에서 (2008.11.22) Dokdo as seen on the road to Saegakdan, Sadong, Ulleungdo (22 Nov.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사동 새각단에서 (2008.11.22.) Dokdo as seen from Saegakdan, Sadong, Ulleungdo (22 Nov.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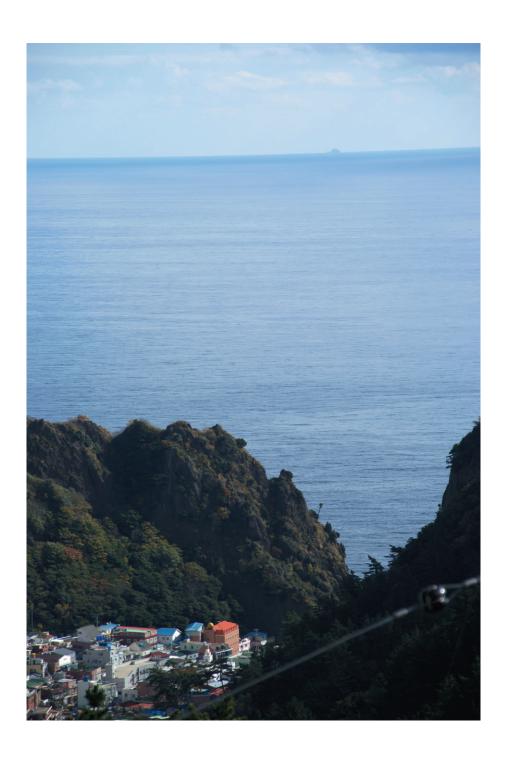


울릉도 도동시내를 배경으로 (2008.8.7) Dokdo with downtown Dodong, Ulleungdo as background (7 Aug. 2008)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시내를 배경으로 (2008.9.28) Dokdo with downtown Dodong, Ulleungdo as background (28 Sep. 2008)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시내를 배경으로 (2008.11.12) Dokdo with downtown Dodong, Ulleungdo as background (12 Nov. 2008)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8.7)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7 Aug.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8.28)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28 Aug. 2008)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0.1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12 Oct. 2008)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0.1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12 Oct. 2008)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1.2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22 Nov.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1.2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22 Nov. 2008)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1.2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22 Nov. 2008)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9.28)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28 Sep.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0.1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12 Oct. 2008)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8.11.1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12 Nov.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도동 깍끼등에서 (2009.3.4)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Dodong, Ulleungdo (4 Mar. 2009)



울릉도 저동 내수전에서 (2007.1.14) Dokdo as seen from Naesujeon, Jeodong, Ulleungdo (14 Jan. 2007)



울릉도 저동 내수전에서 (2008.1.14)

Dokdo as seen from Naesujeon, Jeodong, Ulleungdo (14 Jan. 2008)



울릉도 석포마을에서 (2007.1.14) Dokdo as seen from Seokpo village, Ulleungdo (14 Ja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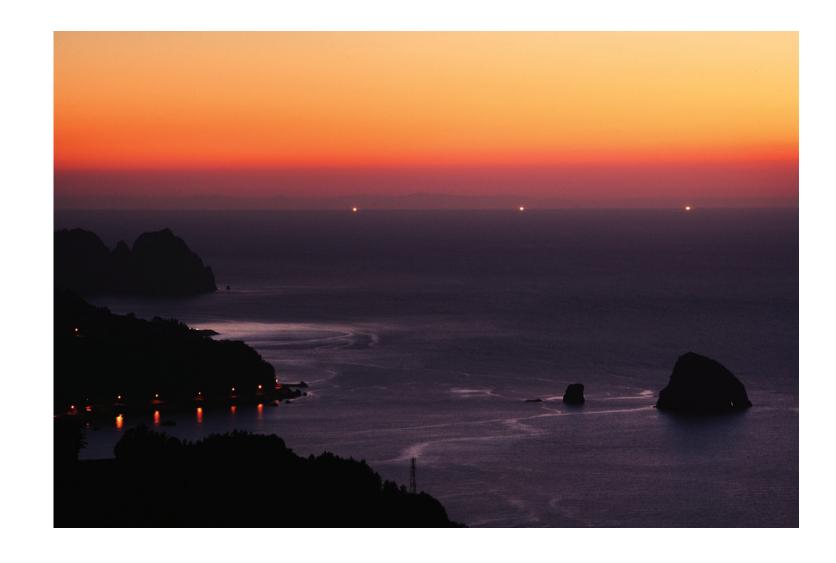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석포전망대에서 (2008.8.6) Dokdo as seen from the Seokpo observatory, Ulleungdo (6 Aug.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 석포마을에서 (2008.8.7) Dokdo as seen from Seokpo village, Ulleungdo (7 Aug. 2008)

### 울릉도에서 바라본 육지 Korean Peninsula as seen from Ulleungdo



### 울릉도에서 바라본 육지

울릉도 석포전망대에서 (2008.8.6)

Korean Peninsula as seen from the Seokpo observatory, Ulleungdo (6 Aug. 2008)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Ulleungdo as seen from Do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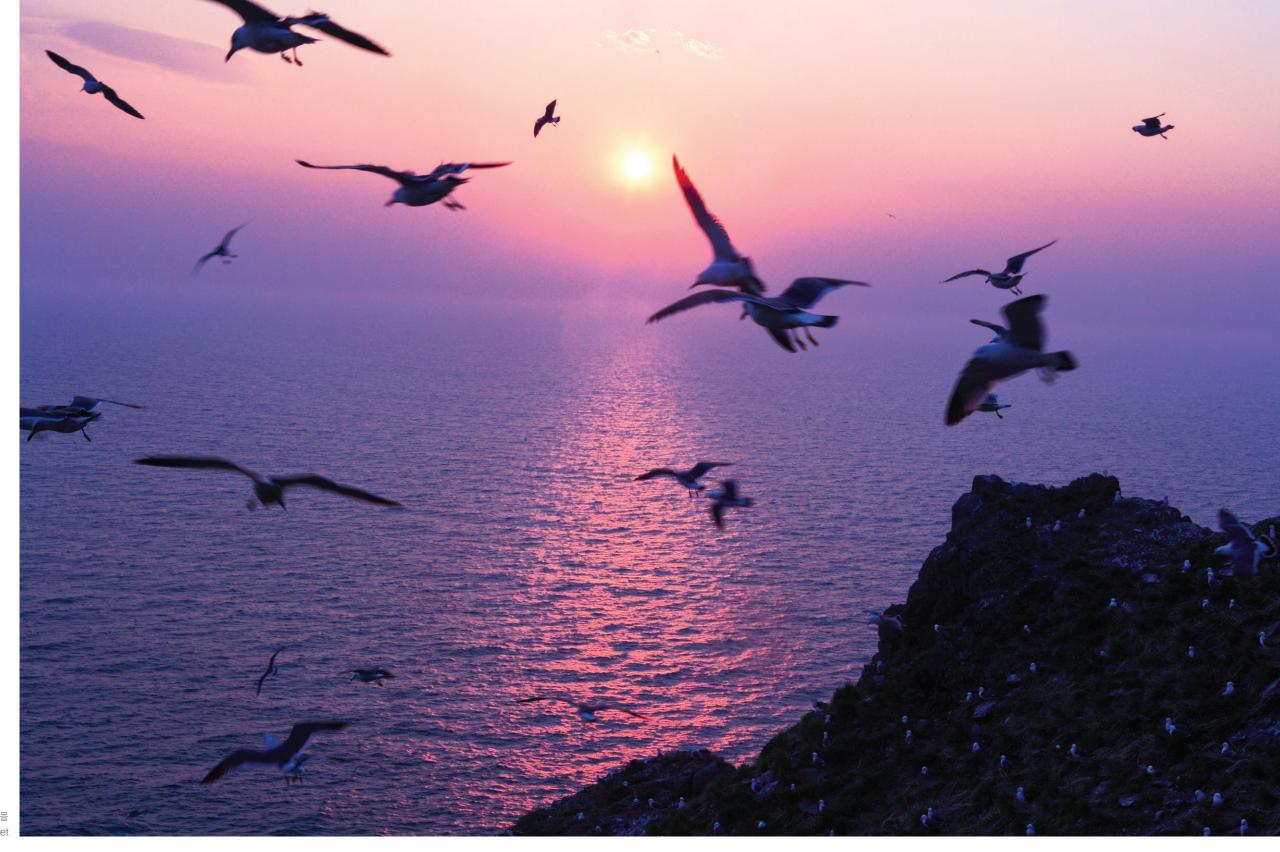


###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동도에서 서도를 배경으로 (2008.8.7) Ulleungdo as seen from Dongdo with Seodo as background (7 Aug. 2008)

독도의 일상

Everyday life of Do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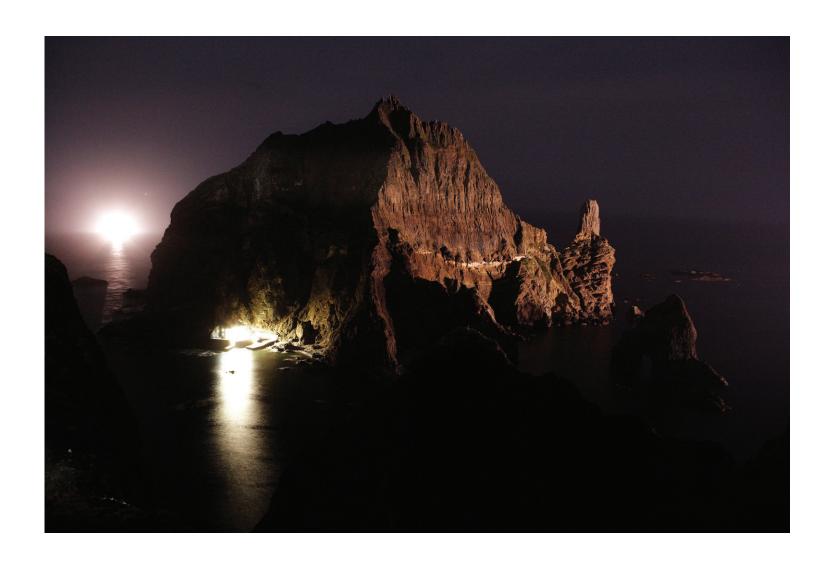
독도의 일몰 Dokdo sunset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 Seodo as seen from Dongdo

서도의 어민 숙소 Fishermen's lodging in Seodo



동도에서 본 서도의 밤 Seodo at night as seen from Dongdo



서도의 물골, 우물 Well in Mulgol, Seodo





독도의 여명 Dokdo daybreak 독도의 갈매기



동도 선착장과 관광객 Tourists and Dongdo pier

그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